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0일 월요일 음 5월 8일 (조금)

기상정보

구름 많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8℃, 낮 최고기온은 23-24℃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20% probability for rain, clouds, and fog.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05:24), 달뜨기 (12:19), 해질 (19:43), 달지기 (00:48), and moonrise (16:45), moonset (22:58).

주간예보

Table with 2 columns: 내일 (19/23°C), 모레 (19/24°C).

생활·안전 기상정보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주의), 자외선지수 (높음).

월드뉴스

日도레이 '피 한 방울' 암 검사 키트 개발

이르면 내년 시판 전망

일본 화학기업인 도레이(東レ)가 혈액 한 방울로 다양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이르면 내년에 시판할 전망이다. 9일 니혼게이지가(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도레이는 일본 국립암연구소 등과 손잡고 2014년부터 추진한 암 진단 키트 개발 프로젝트를 최근 마무리했다. 현재 유전자 검사로 암을 찾아내는 방법은 미국 등에서 실용화돼 있지만 상당한 양(수십㎍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고 실제 발견 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레이가 개발한 키트는 수만엔(수십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한 방울의 피만 있으면 여러 암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고 판정 정확도는 95% 이상에 달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폐암 등 조기 발견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화학을 통한 혁신'을 내건 도레이 홈페이지.

암이 생기면 혈액 속에 마이크로 RNA라는 물질이 늘어나는데, 도레이는 이를 검출하는 유전자 해석 칩을 개발했다. 도레이가 자체 보유한 독자 소재와 가공 기술을 활용해 만든 이 칩은 마이크로 RNA를 기존보다 100배의 감도로 검출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때문에 혈액 한 방울 있으면 암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RNA는 유전자 기능에 관련된 물질로 체내에 약 2600종 존재한다. 암은 이 가운데 특정 마이크로 RNA를 분비해 증식하거나 전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 대표 신문. Contact info: 1989년 4월 22일 창간,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백록담



조 상 운 경제산업부국장

50대 초중반의 직장인들이 자주 듣는 얘기가 있다. "당신은 언제까지야, 일할 수 있는 나이?" 답변은 뻔하다. "스스로 관두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법적으로 명시된 나이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뒤돌아서 남은 햇수를 헤아려 본다. 얼마 남지 않았다. 정년퇴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정년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거나 노령이 돼 업무처리능력이 사회 통념상 급격히 저하된다고 여겨지는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년연장, 이상과 현실

최근들어 정년연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가 만 60세 정년이 전면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정년 연장 논의를 최근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정부 인구조조 개선행태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육체노동 정년을 만 65세로 올렸다. 1989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올린 지 30년만이다. 지난 5월엔 서울, 인천, 울산 등 지자체는 버스 운전기사의 정년을 만 63세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최근들어 70세 또는 정년폐지를 추진하

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더욱 와닿는다. 다른 나라인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은 현재 65세의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정년이 없다. 미국 의회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1986년 65세로 규정된 법적 의무 정년을 없앴다. 영국도 같은 이유로 '65세 정년'을 2011년에 없앴다.

정년연장 및 폐지에 따라 임금 피크제 실시 등 각종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타산 지적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논의속에 흑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특히 정년퇴직 등 당사자들은 왜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나. 일 할만큼 했으니, 이제 남은 생을 좀 쉬면서 살다가야하지 않냐고.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노년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더욱 어려워지는 이들의 입

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더불어 비용부담이 커지는 기업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어려운 시기 앞만 보고 내달렸던 베이비부머들도 모두 은퇴종료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다시 눈앞에서 정년연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년과 은퇴는 무엇일까. 더불어 이들의 자녀는 이 나라의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이른바 노년의 삶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는데서 비롯한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중 하나가 바로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각종 재료도 중요하지만 잘 비벼야 더욱 맛이 있다. 노동자와 기업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좀 더 일할 수 있으면 하게 하고, 힘들면 쉬게끔 해주는 세상이 곧 우리가 먹길 원하는 맛있는 비빔밥이 아닌가 싶다.

열린마당

오존, 바로알고 대비하자



오 중 한 제주도 생활환경팀장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청정지역인 제주에서도 지난 5월 22일 최초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던 만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기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오존의 90%는 성층권에 존재하는데 대기권 오존은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하는 것으로 사람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극성 기체이다.

감사위원회에 감사(感謝)한 제주도 지하수



김 진 성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근래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점은 가뭄과 해수침투 현상이 심화될 거 같은 시점에 비가 온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에 대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 내린 비는 농민들의 시름을 많이 달래주었다.

금회 감사는 도내 농업용 지하수 개발 지속의 적정성,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운영의 경제성, 수리계 운영의 효율성 등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농업용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변론의 여지도 많으나, 전체적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위한 일이기 때

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감사결과보고서의 가장 큰 의의는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지하수 종사자간에 문제점으로 간주돼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던 부분들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는 점이다. 현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제주도 지하수 사용에 제재를 가하면 당장은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도 지하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지하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아끼고 보듬고 관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가져야 할 것이다.

환자는 자신을 병을 정확히 진단해 주고 이에 맞게 처방해 주는 의사에게 무한한 신뢰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감사결과 발표 다음날 내린 비는 아마도 전공 분야도 아닌 지하수 분야를 전문가 이상으로 날카롭게 파헤친 감사관과 감사(監査)위원회에 제주도 지하수가 보내준 감사(感謝)의 비(雨)인 것 같다.

Table with 4 columns: 차종, 사례, 차고지증명 대상여부(0, X), 비고. Includes sub-tables for '제주시 동 지역' and '제주시 읍·면 지역'.

서귀포시정 소식.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초청작 '비보이 뮤지컬 마리오네트' 공연 알림. 행사일시: 2019. 6. 12(수) 19:30. 공연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사무실 임대.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도: 의원, 사무실, 학원 등 전업종 가능.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